

“판문점 선언 비준안 남북정상회담 후 논의”

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동 “정쟁화 하지 말자” 합의 한국당 “진전 있으면 협력”



민주당 표정이... 10일 오전 국회 의정각에서 열린 국회 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희상 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연합뉴스

여야는 10일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안 문제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룬 후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예정된 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논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하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 홍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에게 “내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국회를 보낸다고 했는데 필요한 조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문제를 너무 정쟁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데 공감했다”며 “국회로 보내 오면 의통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3차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에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홍 원내대표는 “내일 보낸 것을 3차 정상회담이 끝나고 논의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국회가 대정부질문 등으로 처리는 쉽지 않으니 논의는 시작해도 결론은 3차 정상회담 결과를 보면서 내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핵폐기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면 국회 차원에서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뒷받침을 하겠다”며 “비준동의안으로 불필요한 정쟁을 서로 안하기로 뜻을 모은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판문점선언의 신속한 비준동의를 강조했고, 한국당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기 전까지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본격적인 회동에 들어가기 전 판문점선언 이행에 필요한 비용추계를 놓고도 얘기를 나눴다. 한국당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가 “비용추계가 왔느냐”고 묻자, 민주당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내일 오는데 저희는 모른다”면서 “보통 90% 정도가 민간 예산”이라고 말했다. 서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어 민간 투자는 대북제재가 풀려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에 “경제제재가 풀리는 시점에

가서 얘기를 해야지 지금은 시의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또 이날 오후에 다시 만나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개혁법안 등 현안 논의를 이어갔다. 이들은 여야 이견에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에 실패한 인터넷은행법, 규제완화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규제개혁법 등을 놓고 논의했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홍 원내대표는 오후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개별 법안들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서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면서 “여야 간 거의 90%는 합의가 돼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아직 좀 더 조율을 많이 해야 한다”면서 “각 상임위에서 실행돼야 하는 것이라서 옛날처럼 원내대표들 간에 얘기했다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상임위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인터넷은행법, 규제완화법) 가능한 이번 주 안에 빨리 매듭짓자고 했다”며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구법도 이번 주 안에 논의해서 마무리하는 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與, 엄호...野, 위장전입·정치성향 맹공

김기영·이석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10일 열린 김기영,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코드 인사와 도덕성, 진보적 이슈 등이 도마에 올랐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 후보자와 관련, 3차례 위장전입과 배우자의 위장 취업 의혹 등 도덕성 위주의 검증이 주를 이뤘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남보다 더 엄격한 규율 속에 살아야 하는데 상습적으로 위장전입을 3번이나 했다”며 “배우자는 부모님이

경영하는 회사에 이사로 등재해 5년 간 3억4500만원을 받는 등 위장 취업 의혹이 있다”고 질타했다. 같은당 이만희 의원도 “후보자는 대전에 현지 판사로 있으면서 서울대 법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2003년 배우자 명의로 산 경기 일산시 소재 아파트는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있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제가 몰랐던 부분도 있고 아내가 한 부분도 있지만, 잘 살피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도덕

적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점은 매우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어 “(이런 사실을)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며 알게 됐다”며 “첫째와 둘째 자녀의 사립학교 입학에 대해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정치적 성향에 대해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석방 탄원에 동참한 사례와 한미FTA 반대 운동을 한 것을 두고도 압박했다. 반면 급대입 민주당 의원은 “민변에 가입해있거나 활동했다는 이유만으로 비난이 있어서는 안 된다”

고 방어를 내세운 당 이춘석 의원은 “국가권력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진보 개념도 아니고, 보수 개념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답변에 나선 이 후보자는 “합세용 신부와 안정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등 저명한 분들이 저에게 석방 탄원을 요청을 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며 “한미FTA 반대 운동은 참여연대 대표로서 했다”고 답했다. 사회적 이슈인 ‘동성혼 찬반’에 대해 이 후보자는 “동성애는 이성애와 다른 성적지향이라고 본다”며 “각국이 동성애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만큼 진지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낙태와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개인의 생각이 있지만 후보자로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임동욱 기자 tuim@

민주당 ‘세종시 쟁기’

지도부 최고위·예산정책협 개최...국회분원 설치 한목소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10일 세종시에 국회분원 설치할 한 목소리로 내는 등 중원 민심 잡기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세종시에서 최고위원회의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잇달아 열고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특히 이날 이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언급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필요성을 소리로 높여 강조했다. 이 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세종시는 사실상 민주당이 만든 도시로, 행정수도로써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별한 애정을 보였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대부분 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한 상황이 때문에 국회 출석 문제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며 “이런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해영 최고위원도 “지난해 국회는 국회 분원 설치를 위한 연구용역비 2억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했지만, 9개월 넘도록 집행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는 연구용역비를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회의 후 이어진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민주당 지도부의 ‘세종시 쟁기’는

계속됐다. 이 대표는 “세종시가 저희 민주당에는 각별하게 소중하다”고 재차 강조하며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써의 기능을 갖춰나가도록 하고 개헌 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은 인근 대전이나 청주, 공주와 서로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연계해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히 5-1 구역에 만들고 있는 스마트시티는 얼마나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내느냐에 따라 앞으로 다른 지역이나 외국까지 수출할 수 있어 좋은 사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회의와 협의회를 마치고 국회 세종분원 후보 부지를 직접 둘러보기도 했다. 이 대표는 부지 시찰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분원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며 “업무공간과 회의장소 등을 어떤 규모로 어떻게 지을 것인지 연구용역을 해서 내년 예산에 설계를 반영하려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시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에 대해서는 “개헌을 할 때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한다고 명기하는 방법이 있고 행정수도, 문화수도 등 여러 개의 수도를 둔다고 하고 위치는 법률로 정하는 방법이 있다. 후자의 방법이 좀 더 공감대가 넓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변화 하자” 넥타이 푼 문광위

국회 상임위 해방 후 첫...“상상력 흘러 넘쳐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들이 10일 넥타이를 매지 않은 차림으로 상임위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앞서 “저를 비롯해 위원들께서 넥타이를 매지 않았다. 장관님 이하 문화체육관광부 직원 여러분도 아무도 타이틀 매지 않았다”며 “이 순간을 해방 이후 국회 상임위에서 최초로 노타이로 회의를 하는 날”이라고 말했다. 이어 “작은 실천이지만 문제위, 문제부가 문화적 상상력이 흘러넘치는 곳이어야 하겠다”면서 “이 회의장도 대한민국의 문화적 가치를 최대한 만들어 낼 수 있는 문화적 상상력이 펼쳐지는 공간, 의원님들과 장·차관, 피감기관 직원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문화적 발전을 위해 상상력이 발휘되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의 제안과 3당 간사 합의에

따라 이날 여야 문제위원들은 모두 넥타이를 매지 않고 편안한 ‘비즈니스 캐주얼’ 차림으로 회의에 출석했다. 특히 바른미래당 간사인 이동섭 의원은 정장 윗안쪽에 와이셔츠 대신 야시안게임 e스포츠 국가대표 유니폼을 착용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채근 씨를 입은 도종환 장관은 “넥타이를 안 매다는 것이 상징하는, 편안하고 심도 있게 법안이나 예산, 현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지속해서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회의 후 “여야 의원들과 문제부 직원들이 신선했다며 모두 좋아했다”면서 “청바지를 입을 수도 있고 태권도 도복을 입을 수도 있다. 국민께 문화적으로 보여드릴 만한 아이টে임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100년 신문 향한 정통지 **광주일보** 창사66주년

2019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입생 모집

사랑과 감사의 64년 1954~2018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학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단위	수시	정시
인문	신학과	30	16
	한국어교육학과	3	1
사범	유아교육과	8	2
사회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교정행위교육상담학 전공)	31	3
예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3	7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 수시모집 : 원서접수 : 2018. 9. 10(월) ~ 14(금) • 전형일 : 2018. 9. 28(금)
-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18. 12. 29(토) ~ 2019. 1. 3(목) • 전형일 : 2019. 1. 10(목)

대학원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65	
		신학과(Ph.D.)	6	
일반대학원	박사	목회학과(D.Min.)	2	
		유아교육학과(D.Ed.)	5	
		사회복지학과(D.S.W.)	5	
		상담심리치료학과(D.C.S.)	5	
		코칭심리학과(D.Psy.)	5	
		통합예술치료학과(D.C.S.)	15	
		통합예술치료학과(D.C.S.)	10	
		석사통합	통합예술치료학과(D.C.S.)	10
		석사	신학과(Th.M.)	25
			유아교육학과(M.Ed.)	8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15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20	
		평생교육학과(M.Ed.)	10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20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6	
		실용음악학과(M.A.)	6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 추후 공지

입학문의 ▶ 학부 062) 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사로 36